

방송통신시장과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 (토론)

아주대 경제학과 김성환

2016. 3. 18

주진열 교수님 발표

- ◆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/판례 비교
 - ◆ 규제여부 판단의 오류 가능성이 큼 (특히, 시장지배력 평가의 문제)
 - ◆ 혁신과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
 - ◆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이 판례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
- ➔ 발표내용에 대체로 공감함
- 지배력 전이 논쟁은 Microsoft 수준의 지배적 독점기업을 전제로 하나, 우리 방송통신 시장은 이와 다름
- ➔ 토론자는, 규제를 위해서는 (지배력 존재 이슈 외에)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요구되는지 보충 설명하고자 함

사례 1 (예시적 설정)

- ◆ 어느 소도시: 대형 영어학원(독점)과 소형 수학학원(과점)
 - 영어학원은 대규모의 시설과 다수의 인기 강사들을 보유
 - 수학학원들의 이윤폭은 상대적으로 작으나 초과이윤 획득
- ◆ 영어학원이 시설확장하고 강사 채용 → 영수학원
 - 영어와 수학 함께 수강시 수강료 할인
 - 학원 시설 및 강사 활용에서의 규모/범위의 경제로 비용절감
- ◆ 소형 수학학원의 피해: 수강생 감소, 수강료 인하
 - 이윤이 절반으로 감소 (여전히 정상이윤은 초과)

사례 1에 대한 예상반응

- ◆ 우리나라 (업계/언론): 지배력 전이 → 규제 필요
 - 수확학원의 입장 고려 → 억울. 공정한 경쟁이 아님. 강자 대 약자
- ◆ 미국/유럽 → 지배력 전이 X, 규제필요 X
 -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 → 수강료 인하, 선택기회 확대
 - (경쟁정책)규제는 약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하여야 함
- ❖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시장 지배력 전이 논쟁은 대부분 이러한 사례 1에 해당 → 지배력 전이의 개념적 실체가 부재 → 공정위/방통위의 결합할인 직접규제 사례 없음

사례 2

◆ 사례 1과 동일한 상황

◆ 단, (일부) 수학학원들의 피해: 지속적 적자 발생 (가변비용 및 매몰되지 않은 고정비용 회수 불능) → 시장독점화 우려

→ 우리나라 (업계/언론): 당연히 규제. 안하면 큰일

→ 미국/유럽: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

- 퇴출위기의 수학학원이 대형 영수학원과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자인지 판단하여야 함 (예: 가격-비용 테스트)
- 만약 수학학원이 효율적인 경쟁자가 아니라면, 퇴출되더라도 정상적인 경쟁의 과정으로 인정

가격-비용 테스트 (관련 주의사항)

- ◆ 우리나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가격-비용 테스트?
 - ➔ 경쟁자 배제가 예상되지 않는 사례1에 해당하는 한, 가격-비용 테스트는 아무 의미가 없음
- ◆ 사례2의 경우에도, 가격-비용 테스트는 안전지대 조건으로 사용될 뿐 (규제개입의 충분조건이 아님)
- ◆ 미국에서는 최근 테스트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진행중
 - 관련 사건들의 법원 판례가 일관되지 않는다는 문제
 - 가격-비용 테스트의 근본적 회의론이 최근 제기되는 추세 (Ohlhausen FTC 위원, Hovenkamp 등)
 - 대안적 기준에 대한 연구와 논의